

한국의 방송 제작체계 구성요소 (〈방송문화〉, 〈PD저널〉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Components of Korean Broadcasting Production System -Based on Analysis of 'Broadcasting Culture' & 'PD Journal'

홍경수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Kyung-Soo Hong(hongks86@sch.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방송 제작현장을 가장 충실히 담고 있는 월간 <방송문화>와 <PD저널>의 주제어 분석을 통해 제작체계의 구성요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월간 <방송문화>의 경우, 편성·제작 중심에서 점점 방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인 제도·정책, 산업, 기술에 대해 관심을 높여왔다는 것을 확인했다. <PD저널>의 경우, 제도·정책, 조직, 편성·제작, 단체행동의 순서대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두 매체의 다소 상이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제도·정책, 산업, 기술, 조직이 편성·제작을 둘러싼 담론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중심어 : | 제작 체계 | 구성요소 | 내용분석 | 편성 | 주제어 분석 |

Abstract

In this study I selected the keyword analysis method to infer what's the components of production system. Magazine <Broadcasting culture>, <PD journal> were chosen, because they are most close media to production reality. After content analysis of <Broadcasting culture>, key words of main reports were programming·production, institution·policy, industry, technology. As for <PD journal>, institution·policy, organization, programming·production, collective action were frequently found.

Even 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wo media, institution·policy, industry, technology, organization keywords are very salient components regarding programming·production.

■ keyword : | Production System | Components | Content Analysis | Programming | Keyword Analysis |

I. 들어가며

사회를 하나의 체계로 파악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어왔다. 하지만 사회의 중요한 하부체계인 방송과 방송의 하부체계인 제작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방송 콘텐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작체계의 구성요소들을 파

악함으로써 한국 방송의 제작체계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 제작체계의 구조를 확인함으로써, 각각의 체계가 방송 콘텐츠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작체계는 '제작 시스템'으로 환언되어 사용되었다. 우선 제작 시스템은 콘텐츠 프로덕션의 지배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구조적이고 공식화된 제도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별로 제작 관행이나 여건에 맞추어 정착되어온 여러 가지 형태의 제작시스템 즉 미국 영화산업의 프로듀서 시스템(Producer System), 미국 텔레비전의 프로듀서-디렉터 시스템(Producer-Director System), NHK의 CP(Chief Producer) 시스템, BBC의 프로듀서 선택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1]. 또한 제작시스템은 인 하우스 프로덕션 시스템(In-House Production System)이나 외주제작 시스템 등 제작주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사용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작시스템은 누가 주도적으로 제작을 이끄는지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공식화된 조직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제작시스템에 대한 연구로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작가 프로듀싱 시스템에 대한 연구[2]나, KBS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방송사 내부피디의 VJ 지정을 통한 1인 제작시스템에 대한 연구[3], 드라마의 사전제작 시스템과 반 사전 제작시스템에 대한 연구[4] 등 다양하다. 한군태는 ‘공영방송의 제작시스템 개선 방안’이라는 글에서 인력, 자본, 시간, 제작시설 등을 제작구조로 상정하고 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제작체계를 제시했으며 이 제작체계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했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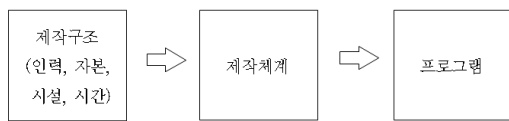


그림 1. 프로그램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5]

한군태의 지적에서 제작 체계는 인력, 자본, 시설, 시간 등 제작구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CP 시스템을 포괄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군태는 제작 체계에 영향을 주는 제작구조를 프로그램 아웃풋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풋 요인(인력, 자본, 시설, 시간)에 국한시켰다. 그 결과 법, 제도·정책, 기술, 조직 구조, 조직문화 등 프로그램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이며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을 배제하는 한계를 보였다. 즉 기존 제작시스템 논의가 ‘체계적 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에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인풋요인이나

가시적 요소 등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설명력이 낮은 한계를 드러냈다.

제작체계 구성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미디어의 내용을 통제하는 요인에 관한 슈메이커의 연구, 편성 결정 요소에 관한 연구, 공영방송의 독립과 지배구조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이미 제작체계의 구성요소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지 개념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 슈메이커는 계층모형을 통해서 미디어 내용에 미치는 차원들을 개인적 차원, 미디어 관행 차원, 조직차원, 미디어 외적 차원, 이데올로기 차원으로 구분했다. [6].

슈메이커의 계층모형을 살펴보면, 극히 미시적인 차원에서부터 거시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면들을 정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녀의 계층모형을 통해 제작체계를 추출해보면, 우선 개인적 차원은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제작체계를 구성하는 주요한 변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제작체계는 개별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인 차원의 영향력의 총체이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적인 것이 모여서 하나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이는 개인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조직 문화적 차원에 더 가깝다.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 차원 역시 지나치게 거시적이고, 그 영향 역시 폭넓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작체계의 구성요소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슈메이커의 모델을 통해서 관행, 조직, 정보원, 광고주와 수용자, 정부의 통제, 미디어 시장, 기술 등이 제작체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다.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역시 제작체계의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주성희는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외부의 통제요인과 내부의 통제요인으로 구분하고, 전자에는 정치적 통제요인, 경제적 통제요인, 사회적 통제요인, 자율적 통제요인이 있으며, 후자로 방송사 내의 경영진과 편성 담당자들을 제시했다[7]. 정치적 통제요인은 법적 차원과 법 외적 차원에서 이뤄지며, 정치 체제 자체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정치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경제적 통제는 주로 광고로 인한 영향을 포함하며, 사회적 통제는 시민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

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입과 이창현 역시 편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법·제도적 요인, 산업·경제적 요인, 조직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수용자 조건으로 구분했다. 법·제도적 요인은 편성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 방송법과 방송위원회 심의 규정, 방송에 관한 행정 규정, 법령 등이 해당된다. 산업·경제적 요인은 방송 산업을 둘러싼 외부 경제적인 환경을 의미하며 방송 산업 시장구조, 광고비 규모, 방송 체제 등을 말한다. 방송사 내부의 조직적인 문제는 편성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방송사의 시설을 포함한 물리적 조건, 예산 조건, 인적 조건 등 3가지의 제작조건과 윤리규정, 경영 방침 등이 편성에 영향을 미친다. 방송 프로그램은 사상과 가치를 담은 문화적 상품으로 사회적 가치나 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수용자 조건은 시청자나 청취자의 연령, 직업, 취미 등이다[8].

제작체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공영방송의 독립과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는 내외부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은 공영방송을 규정하고 있는 법과 규제 기관, 정치 및 경제적 세력 등이라 할 수 있다. 즉 공영방송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과 같은 법제와 실제 법제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하고 있는 청와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외부 세력이다. 공영방송의 독립과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는 내부요인은 방송사의 운영을 위해 제정하고 있는 제반 규정이므로 실제로 공영방송 내부에 존재하는 조직구조, 인사구조, 프로그램 제작여건 등이다[9]. 위와 같은 미디어 내용 통제나 편성 결정 요인 등을 종합해 볼 때, 방송사 외적인 조건으로 국가나 정치에 기인한 법·제도·정책 등의 규제적 요인, 산업·경제·시장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이 두드러지며, 내적 요인으로 제작조건, 윤리규정, 경영방침 등 조직구조 및 조직 문화적 요인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개념적 차원에서 규정된 것으로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적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서는 명료하지 않다. 따라서 체계적 속성을 가진 제작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방송 제작

을 둘러싼 담론의 장에서 교환되는 담론의 주제들을 실질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방송 제작 담론의 핵심에서 제작의 근간을 이루는 구성요소들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 제작 현업을 대표하는 인쇄매체 2종이 주로 다룬 주제어 분석을 통해 방송 제작체계의 구성요소를 유추함으로써 제작체계와 관련된 연구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자 한다.

II. 제작체계 구성요소의 추출

제작체계 구성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방송 현업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진 인쇄매체 2종을 선택하여 내용 분석했다. 방송협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월간 <방송문화>와 방송 피디들의 직능단체인 전국 PD 연합회에서 매주 발간하는 주간 <PD 저널>을 선택했다. 월간 <방송문화>를 선택한 이유는 방송사들의 경영진이 주축이 된 방송 협회가 발행하는 잡지인 만큼, 방송 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이다. 방송 경영, 방송기술, 방송 제작 등 프로그램의 제작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기사가 많다. 반면 <PD 저널>은 현업인의 눈높이에서 방송제작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제도 등 거시담론과 현업인의 제작기와 칼럼 등 더 현실적인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어서 방송제작을 둘러싸고 어떤 담론들이 두드러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두 매체는 방송 제작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지만, 방송 제작을 바라보는 방향에서는 차이가 있다. <방송문화>가 경영자의 입장에서 방송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정책, 시장 등 외부조건에 초점을 두고 방송제작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PD 저널>은 피디들의 시각으로 방송 제작을 둘러싼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찰한다는 것이다. 담론의 주체도 다르고, 제작에 대한 관점도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두 매체는 방송 제작이라는 주제에 밀접히 고찰하는 공통점을 지녔다. 따라서 두 매체의 내용분석을 통해 방송 제작체계의 윤곽을 비교적 균형 잡힌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그렇다면 <방송문화>와 <PD 저널>에서 다루고 있는 방송제작과 관련된 주요 담론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

구문체에 접근하기 위해 해당 매체의 주요 고정 면이나 코너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시기별로 이러한 제작 관련 담론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 지 파악함으로써 담론의 시기별 변화 양상도 고찰하기로 했다.

내용분석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홍두표 시기(1993년 3월18일~1998년 4월1일), 박권상 시기(1998년 4월20일~2003년 3월 11일), 정연주 시기(2003년 4월25일~2008년 8월 12일), 이병순 시기(2008년 8월27일~2009년 11월23일), 김인규 시기(2009년 11월24일~2011.12.31까지). 사장 퇴임과 취임 기간 사이에 시간적 공간은 다음 사장의 취임기간에 포함시켰다. 내용분석의 시기구분을 KBS 사장의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은 본 연구가 KBS의 제작체계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1. 월간 <방송문화>

1) 분석대상 및 분석 단위

월간 <방송문화>는 지상파방송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된 방송협회가 방송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방송문화 발전에 도움주기 위해 창간됐다. 방송협회가 발행하는 월간<방송문화> 2011년 12월호의 실제 목차를 통해 잡지의 고정 코너를 확인해 보았다. 대담, 이슈, 특집, 해외 방송현장 및 글로벌 리포트, 기획 1,2, 진단, 방송기술을 소개하는 '그건 이겁니다', 방송제작기, 방송관련 책자 소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잡지 내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6쪽지를 배정한 특집란이다. 지상파방송의 정책과제를 다양한 부문에서 점검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글로벌 리포트로 해외 방송계 동향을 전하고 있다.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획 란으로 방송관련 판결과 일본의 한류문화를 취재했다. 나머지 쪽지들은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기간인 1993년부터 2011년까지 19년 동안 지속되는 코너는 많지 않았다. 특집 코너와, 기획 코너는 지속되었으나 해외 방송 동향 부분은 1993년부터 2008년까지는 아예 없거나 간단히 처리되다가 2009년이 되어서야 글로벌 리포트

라는 이름으로 생겨났다. 따라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변함없이 지속되어온 코너는 특집과 기획 란뿐이어서 두 코너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본격적인 코딩에 앞서 유목 분석을 위해 1년분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2011년 한 해 동안 잡지에 실린 기획기사는 총 27건으로 제도 및 정책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산업으로 5건, 시청률이나 심의 등 평가에 대한 것도 5건, 기술에 대한 것이 3건으로 집계되었다. 그 외에도 편성이 1건, 윤리 등 기타 3건으로 집계되었다. 특집 코너에서도 방송정책 및 제도(방송시간자유화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랩, 정책과제) 방송 산업(콘텐츠유통전략), 기술(다채널 서비스, 디지털전환, 차세대 방송) 등 정책 및 제도와 기술에 대한 변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1993년부터 2011년까지 19년간의 <방송문화> 총 228호를 모집단으로 하여 본 조사를 실시했다. 잡지의 속성상 매해 1월과 12월에는 신년 특집 및 송년특집으로 한 해의 사업계획이나 사업결과 정리 등 특집성이 강하며, 9월호는 방송협회에서 주관하는 방송대상 결과를 집중 보도하기 때문에 대표성 약하다고 판단되어 분석대상에서 배제했다. 따라서 1,9,12월을 제외한 달을 체계적 표집을 통해 매해 3개월분의 잡지를 선택하기로 했다. 남은 9개의 해당월 중 4개월 단위의 격차를 두고 얻을 수 있는 조합은 3,7,11월이 유일하여 해당하는 호수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기로 했다. 물론 체계적 표집이 주기성의 영향을 받을 때 생겨나는 편향성의 염려가 있지만, 경기 동향과 연동되는 광고량의 변화에 따른 것이 대부분으로, 본 잡지는 광고가 방송사 소개 광고가 대부분이고 내용도 매우 적으므로, 내용상 편향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1993년~2011년의 3,7,11월에 해당하는 잡지 19년분인 57부의 잡지에 실린 특집기사와 기획기사 270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분석단위는 각각의 기사 항목이다. 각 기사의 제목, 중간제목과 본문을 읽은 후에 주제를 분석했다.

2) 분석유목, 분석 방법 및 신뢰도 검증

뉴스에서 핵심적으로 보도하고자 하는 주제어는 무

엇인지, 제목과 본문을 읽고 분석했다. 먼저, 분석 대상 표본으로 선정된 기사의 제목과 본문 내용을 통해서 주제어를 코딩했다. 코딩의 일관성 및 분석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전체 분석 대상 중 1년 치인 3개월 분의 기사를 사전 코딩을 거친 후, 코딩 결과가 상이하거나 유목 분류가 애매한 경우는 서로 협의하여 분류 유목을 최종 확정했다. 분석유목은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제도·정책, 기술, 산업, 조직, 편성 제작, 기타로 구분했다. 제도·정책은 정부, 국회, 방송위원회 등 방송 제도와 정책 관련 단체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술은 뉴미디어, 미디어 등 방송의 콘텐츠가 아니라 내용외적인 인프라로서의 테크놀로지가 추가 되는 내용으로, 산업은 경영, 광고, 콘텐츠 산업, 한류, 수출입, 업계 시장동향 등 경영이나 콘텐츠의 유통과 밀접한 내용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조직은 팀제, 계약제 등 개별 회사 내의 조직구성의 원칙과 관련된 사항. 자율성, 언론자유 등을 위축시키거나 신장시키는 조직 내의 분위기, 풍토, 기풍 등도 포함하며, 프로그램의 편성과 제작과 관련된 내용을 편성 제작에 포함시켰다. 코딩을 마친 데이터는 SPSS 1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을 실시했다. 코더 간 신뢰도는 kappa 값으로 측정했고 kappa 값 0.64로 상당히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표 1. 월간 <방송문화> 기사의 분석유목

유목	조작적 정의
제도 정책	정부, 국회, 방송위원회 등 방송 제도와 정책 관련 단체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내용
기술	뉴미디어, 미디어 등 방송의 콘텐츠가 아니라 내용외적인 인프라로서의 테크놀로지가 추가 되는 내용
산업	경영, 광고, 콘텐츠 산업, 한류, 수출입, 업계 시장동향 등 경영이나 콘텐츠의 유통과 밀접한 내용
조직	팀제, 계약제 등 개별 회사 내의 조직구성의 원칙과 관련된 사항. 자율성, 언론자유 등을 위축시키거나 신장시키는 조직 내의 분위기, 풍토, 기풍 등도 포함
편성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과 제작과 관련된 내용
기타	

3) 분석 범주 확인

분석 범주를 확인한 결과 홍두표 시기에는 편성 및 제작에 대한 기사가 57건 (51.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기술 9건(23.3%), 제도·정책 8건(21.8%), 산업 8건(21.8%)이 뒤를 이었다. 방송 편성 및 제작 자체에 대한 내용이 방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기사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변화와 진로(1993.7), 방송시간 연장과 가을프로그램 개편(1995.11), 방송시간 연장에 대한 평가와 과제(1996. 3), 프로그램 포맷개발과 질적 향상(1996.7), 프로그램 포맷 및 장르 개발(1997.3) 등이 편성 및 제작에 대한 기사들이다. 두 번째로 많은 분야는 기술 분야로 당시에 새롭게 도입된 이른 바 뉴미디어 방송기술의 도입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CATV 시대의 공중파 방송(1994.3), 위성방송 실시와 발전방안(1996.7), 디지털 시대의 방송통신과 지적 소유권(1997.11) 기사들은 당시의 새로운 뉴미디어 기술인 케이블 TV, 위성방송, 다채널 시대의 방송관련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세 번째로 많은 제도·정책 관련 기사에는 한국방송제도의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1994.11), 중일방송 실시할 때(1993.3) 등이 있고, 산업 관련 기사에는 수출산업으로서의 방송영상 산업 가능성(1994.7), 국내 방송프로그램 수출입현황(1995.11) 등의 기사가 있다. 다섯 번째로 많은 기사는 조직에 대한 기사로는 우리나라 방송사의 인력수급 구조와 문제점(1993.3) 등의 기사가 발견된다. 홍두표 시기에 이렇게 편성 및 제작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은 잡지 초창기에 방송제작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보다는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하루빨리 세계적인 수준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방송업계의 의무감이 편성·제작에 초점을 두게 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박권상 시기에는 제도·정책에 대한 기사가 25건 (35.2%)으로 가장 많았고, 편성 제작에 대한 기사 21건 (29.5%), 산업 10건(14%), 기술 9건(18.3%)에 대한 기사가 뒤를 이었다. 조직과 관련된 기사는 3건(6%)을 기록했다. 박권상 시기는 편성·제작 자체에 대한 기사보다 제도·정책에 대한 기사가 더 많아진 시기로 제도와 정책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방송광고 정책과 광고의 활성화(1998.7), 위주제작정책의 허와 실(1998.11),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 평가와 전망(1999.3), 방송편성

의 자유와 편성규제정책(1999.7) 중간광고의 필요성(1999.11)이 제도·정책 관련 기사들이다. 편성 제작에 대한 기사로는 토론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점(2000.3), 월드컵 중계방송 어떻게 하나(2001.11) 등이 발견된다. 산업관련 기사로는 다매체시대 방송콘텐츠 수급방안(2001.3),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전략(2001.3) 기사 등이, 기술관련 기사로는 디지털 방송 실시와 문제점(2000.3), 위성방송 실시 어떻게 되거나(2000.7) 등의 기사가 보인다. 박권상 시기는 제작 편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를 가능하게 하고 규제하는 제도·정책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된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이는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새로운 방송질서의 재편 움직임이 있었고, 제도나 정책에 대한 효능감이 커진 시대적 분위기로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정연주 시기에는 제도·정책에 대한 기사가 44건(51.8%)으로 대폭 늘어났고, 산업 19건(25.3%), 기술 6건(8%) 차례를 보였다. 제도·정책에 대한 기사가 급속히 늘어남과 동시에 반대로 기술과 편성 제작의 기사는 줄었다. 심지어 편성 제작 기사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연주 시기의 제도·정책 기사로는 외주제작 의무비율과 현안(2003.7), 디지털시대 방송심의제도 쟁점과 개선방향(2005.3), 지상파방송 허가기간 확대하고 공적 책무 확보해야(2007.7) 등이 있고, 산업관련 기사들은 중국 방송영상산업 개방 의미와 전망(2004.3), 한류 현황 및 미래전망(2006.11) 등이, 기술관련 기사로는 라디오 디지털 전환과 현안(2005.7) 등이 있다. 정연주 시기는 박권상 시기에 이어 제도·정책에 대한 효능감이 여전히 높은 시기였으며, 한류의 촉발로 인해 산업적인 측면에 대한 접근이 많아진 특징을 보인다.

이병순 시기에는 제도·정책 10건(47.6%), 산업 6건(28.6%), 편성 제작 2건(9.5%)의 차례를 보였고, 특이하게 기술관련 기사는 1건으로 매우 낮은 빈도를 보였다. 이병순 시기 제도·정책 기사는 방송 공정성 심의의 문제점과 위헌성, 종합편성채널 도입 전에 법·제도 정비 우선(2008.11) 등이, 산업 관련 기사로는 경영 위기와 지상파방송사의 경영 전략(2009.7), 편성·제작 기사로는 피디저널리즘의 저널리즘적 가치(2008.11) 등이 있었다. 김인규 시기에는 제도·정책 11건(36.3%), 산업

7건(26%), 기술 6건(22.2%)의 순서대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제도·정책 기사로 방송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점(2010.3), 미디어 환경변화와 외주정책의 새로운 방안 모색(2011.3), 산업 기사로 K-POP 붐으로 단단해진 한류 비즈니스(2011.3), 기술 기사로 3D TV 기술, 방송시스템 및 실험방송(2010.7) 등이 있다.

항목별 변화를 살펴보면, 제도·정책은 홍두표 시기에 적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박권상 시기부터 편성 제작을 추월하여 정연주, 이병순, 김인규 시기에는 다른 요소들과 큰 격차를 보이게 된다. 기술은 홍두표 시기 9건, 박권상 시기 9건, 정연주 시기 6건, 이병순 1건, 김인규 시기 6건으로 정연주 시기를 중심으로 비중이 줄었다가 이병순 시기에 급속히 줄고 김인규 시기에 다시 회복되는 특성을 보였다. 산업 비중은 비교적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 반면, 편성 제작 비중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월간 <방송문화>가 방송 편성 제작 중심에서 점점 방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관심을 높여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제도와 정책에 대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방송 제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제도·정책이 상정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산업 요소는 점점 비중이 커지다가 이병순 시기에 정점에 달하고 김인규 시기에 약간 줄어든 추세를 보인다. 기술은 정연주 이병순 시기에 줄었다가 김인규 시기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조직에 대한 기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월간 <방송문화>가 방송사 내의 조직 구조나 조직 문화 등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제도, 산업, 기술 등 외부적인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존재론적 속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제도·정책이 98건으로 가장 많고, 편성·제작 57건, 산업 50건, 기술 31건, 조직 9건 순서대로 빈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범주 확인 결과에 따르면, 제도·정책의 비중이 점점 커졌고, 전체 시기를 통틀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통해, 방송제작의 가장 큰 주제가 제도·정책의 범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업과 기술 역시 제작체계에 영향을 주는 두드러진 범주라는 것도 알 수 있다.

표 2. 월간 <방송문화> 특집 및 기획기사 시기별 빈도
(괄호 안은 %)

	제도 정책	기술	산업	조직	편성 제작	기타
홍두표	8 (21.8)	9 (23.3)	8 (21.8)	4 (11)	31 (51.6)	0
박권상	25 (35.2)	9 (18.3)	10 (14)	3 (6)	21 (29.5)	3 (4.2)
정연주	44 (58.6)	6 (8)	19 (25.3)	2 (2.6)	1 (1.3)	3 (4)
이병순	10 (47.6)	1 (4.7)	6 (28.6)	-	2 (9.5)	2 (9.5)
김인규	11 (40.7)	6 (22.2)	7 (26)	-	2 (7.4)	1 (3.7)
전체	98 (38.6)	31 (11.5)	50 (18.5)	9 (3.5)	57 (22.4)	9 (3.5)

2. <PD 저널> 조사

1) 분석대상 및 분석단위

두 번째 조사 대상은 <PD 저널>이다. <PD 저널>은 자유언론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회원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방송문화 창달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학술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 PD 연합회의 주간 매체다. <PD 저널>은 1988년 1월 25일 월간 <프로듀서>로 출발하여 1995년 4월 <프로듀서 연합회보>로 제호를 변경하였고, 1999년 1월 14일 <PD 연합회보>로 이름을 바꿨으며, 2006년 1월 4일 <PD 저널>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업인들이 회원인 만큼 방송제작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실질적인 사안들을 주로 다루어 왔다. 방송 제작기부터 방송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이르기까지 방송 제작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들을 담아내고 있다. 2011년 12월에 발행된 <PD 저널>의 내용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면 종합, 5면 문화, 6면 연예 오락, 7면 오피니언, 8면 광고.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조사대상 기간 동안 고정된 코너는 많지 않았다. 사실, 피디들의 칼럼, 프로그램 제작기 등이 지속되었을 뿐이다. 그렇다고 사실, 칼럼, 제작기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주관적인 의견을 담은 글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빠짐없이 담아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1면 기사를 포함하여 사실과 피디들의 칼럼을 조사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신문의 1면은 일련의 이용 가능한 기사들로부터 뉴스 기편이 선택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저널리스트로서 편집

인들의 뉴스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10]. 표집은 1년 치 내용에 대한 추론을 위해 효율적인 계층화된 표집방법으로 추천된 1년에 총 12개의 무작위 추출법을 선택했다. 주간 발행 시는 1년에 12부, 격주간 발행 시는 6부, 월간 발행 시는 3부의 비율로 추출했다. 총 분석대상 기사는 783건이었다.

2) 분석유목, 분석 방법 및 신뢰도 검증

두 코더가 각각 1년 치 분량 12개의 샘플의 기사를 사전 코딩을 거친 후, 코딩 결과가 상이하거나 유목 분류가 애매한 경우는 서로 협의하여 분류 유목을 최종 확정했다. 결과 추출된 주된 분석유목은 다음과 같았다. 제도·정책, 기술, 산업, 조직, 편성·제작, 단체행동, 행사동정, 사회, 국제, 법적 쟁송, 심의평가, 기타. 각각의 분류 유목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방송문화>와 <PD 저널>간에 유목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방송문화>가 특집, 기획 기사만을 분석한 데 비해, <PD 저널>은 1면의 기사를 포함하여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코더 간 신뢰도는 kappa 값으로 측정했고 kappa값 0.84로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표 3. <PD저널> 기사의 분석유목

유목	조작적 정의
제도·정책	정부, 국회, 방송위원회 등 방송 제도와 정책 관련 단체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내용
기술	뉴미디어, 미디어 등 방송의 콘텐츠가 아니라 내용외적인 인프라로서의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내용
산업	경영, 광고, 콘텐츠 산업, 한류, 수출입, 업계 시장동향 등 경영과 콘텐츠의 유통과 밀접한 내용
조직	팀제, 계약제 등 개별 회사 내의 조직구성의 원칙, 자율성, 언론자유 등을 위축시키거나 신장시키는 조직 내의 분위기, 풍토, 기풍과 관련된 내용
편성·제작	프로그램의 편성과 제작과 관련된 내용
단체행동	성명서, 파업, 시위, 제작거부 등 노조의 저항과 관련된 일체의 행동
행사동정	학술, 의식, 기념식, 명사 개인의 동정
사회	방송제작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회적인 이슈
국제	외국과 관련된 사례
법적쟁송	고소, 고발, 피소, 항소, 항고, 판결 등 법적 다툼과 결정과 관련된 사항
심의평가	심의, 시청률 등 프로그램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기타	

3) 분석 범주의 확인

분석 결과 홍두표 시기에는 행사 동정 기사가 33건 (3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제도·정책 21건

(19.2%), 조직 18(16.5%), 단체행동12(11%), 편성·제작 10(9.2%) 순으로 큰 비중을 보였다. 창립기념 통일과 방송 심포지엄 성료, TV드라마연구회 5년만 부활(1996.9.6)같은 기사들이 행사 및 동정기사다. 두 번째로 많은 기사는 제도·정책 기사로, 방송위 권한 강화에 초점 맞춘 개악·공발연 보고서를 보고(1994. 2.15) 등이 있다. 세 번째로 조직에 해당하는 기사는 MBC 파업악몽 되살아난다-최문순 전위원장 해고 등 중정계방침(1996.6.7) 등 조직 내부의 구성의 원리나 조직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사들이다. 다음이 단체행동으로 노동조합이나, 협회를 통한 성명발표, 규탄, 시위, 파업 등 조직적 행동에 관련한 기사들이다. 홍두표 시기 <PD저널>에 행사 동정 기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프로듀서의 친목을 도모하는 잡지의 우선적 목적에 충실한 매체의 초기전략 때문으로 보인다.

박권상 시기에는 제도·정책 66건(29.2%), 조직 37건(16.4%), 편성·제작18(7.9%), 행사동정 29건(12.8%), 단체행동18(7.9%) 순으로 제도·정책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방송위원 누가되나.....언론사 사장, 현역의원 등 6·7명 거론, 방송관련단체 방송법시행령 작업활발(2000.1.13) 등 방송 제도를 움직이는 중요한 인물의 임명 기사도 제도·정책 관련 기사에 포함시켰다. 조직에 관한 기사는 MBC 드라마국, 올해부터 전문 프로듀서제 실시(2000.1.13)등 조직 내부의 구성에 대한 기사가 있고, 편성 제작에 대한 기사는 반론보도에 시사프로 몸살, MBC 한국100년.....종말론 오락가락 끝에 방영, (1999.6.4)기사 등을 들 수 있다. 행사 동정 기사로는 KBS창원 김철환 PD 방송후 교통사고로 순직(1999.6.4) 등이 있다.

정연주 시기에는 제도·정책 60건(22.3%), 편성·제작 22건(13%), 행사동정 16건(9.5%), 사회 14건(8.3%)의 순서를 나타내 제도·정책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제도·정책 기사로는 정치권은 방송에서 손 떼라, 언론시민단체, 공영방송 이사 추천위 구성촉구, 방송위의 우선적과제(2003.6.4)를 들 수 있다. 편성 제작 기사에는 KBS<역사스페셜> 폐지결정, 월드컵 1주년 열풍에 또 다시 침묵-6월 항쟁, 6.15, 미션효순 추모 등은 빈곤(2003.6.4) 등이 있다.

이병순 시기에는 조직20건(22.7%), 제도·정책 19건(21.6%), 편성·제작12건(13.6%), 단체행동, 법적쟁송 각각 7건(7.9%)순으로 비중을 달리했다. 조직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이 두드러진 변화다. 방송사 본격구조조정 시작되나(2008.11.26), 언론인해직...구속...MB정부 어디까지,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영장 발부(2009.3.25) 등 조직 내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뉴스도 조직과 관련한 뉴스에 포함시켰다. 여야, 방송법 등 시한 없이 합의처리...언론노조 총과업계속 잠정 업무복귀(2009.1.7) 등 제도·정책 기사가 두 번째로 많았으며, 편성 제작에 대한 기사로는 WBC 열풍 메인뉴스도 스포츠뉴스로(2009.3.25) 등의 기사가 발견되었다.

김인규 시기에는 제도·정책 25건(20.3%), 조직 21건(17%), 편성·제작 18건(14.6%), 사회 15건(12.2%) 순으로 제도·정책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제도·정책 기사로는 MBC 폭풍전야...2월 긴장고조..방문진 사장내정, 김재철 연임시 격돌예상, 미디어랩 법안 중편심사의혹 쟁점, 방통위 KBS 수신료인상안에 부정적(2011.2.9) 등의 기사들이 보이고, 조직에 관한 기사로는 피디 저널리즘 위축...우려가 현실로, 김재철 사장 연임 인사후 폭풍(2011.3.2), 편성·제작 기사로는 우리시대 정직한 목격자 PD수첩(2010.4.28) 등이 있다.

기사별 변화를 살펴보면, 제도·정책 변인의 경우 홍두표 시기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박권상 시기 이후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방송문화>와 동일한 특성을 보였다. 조직에 대한 기사는 홍두표·박권상 시기에 두 번째로 큰 비중을 보이다가 정연주 시기에 줄었다가 이병순 시기에는 다른 기사보다 더 많은 특징을 보였다. 정권 교체와 더불어 방송계에 일어난 조직 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듯하다. 기술과 산업 기사는 조사기간 내내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편성 및 제작 관련 기사는 10%를 상회하는 비중을 보였고, 단체 행동은 10%를 하회하는 비율을 차지했다. 단체 행동의 목적은 방송관련한 제도·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제도·정책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겠다. 행사 동정은 초기에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점점 낮아졌는데,

이는 <PD 저널>이 커뮤니티 소식지 성격에서 점차 정책적인 방향으로 전환해 왔음을 의미한다. <PD 저널> 내용분석을 종합하면, 제도·정책 기사가 191건(26.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조직 관련 기사 113건(15.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편성·제작 96건(13.4%)과 단체행동 61건(8.5%)이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월간 <방송 문화>와는 달리, 기술과 산업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4. <PD 저널> 1면 기사, 사설, 칼럼의 시기별 주제 빈도

	제도·정책	기술	산업	조직	편성제작	단체행동
홍두표	21 (19.2)	1 (0.9)	2 (1.8)	18 (16.5)	10 (9.2)	12 (11)
박권상	66 (29.2)	5 (2.2)	6 (2.6)	37 (16.4)	34 (15)	18 (7.9)
정연주	60 (22.3)	3 (1.8)	12 (7.1)	17 (10)	22 (13)	13 (7.7)
이병순	19 (21.6)	1 (1.1)	2 (2.2)	20 (22.7)	12 (13.6)	7 (7.9)
김인규	25 (20.3)	-	6 (4.8)	21 (17)	18 (14.6)	11 (8.9)
전체	191 (26.7)	10 (1.4)	28 (3.9)	113 (15.8)	96 (13.4)	61 (8.5)
	행사 동정	사회	국제	법적 쟁송	심의 평가	기타
홍두표	33 (30)	5 (4.6)	-	1 (0.9)	-	6 (5.5)
박권상	29 (12.8)	10 (4.4)	3 (1.3)	7 (3.1)	1 (0.4)	10 (4.4)
정연주	16 (9.5)	14 (8.3)	2 (1.2)	1 (0.6)	1 (0.6)	8 (4.7)
이병순	2 (2.2)	10 (11.3)	-	7 (7.9)	1 (1.1)	7 (7.9)
김인규	7 (5.7)	15 (12.2)	-	6 (4.9)	1 (0.8)	13 (10.6)
전체	87 (12.1)	54 (7.5)	5 (0.7)	22 (3.0)	4 (0.5)	44 (6.1)

III. 결론

두 매체의 내용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두 매체는 제도·정책에 대한 기사의 비중을 점점 키워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대상 시기 전체를 통틀었을 때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월간 <방송문화>는 기술과 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비해, <PD 저널>은 조직과 편성 제작관련 기사가 그 다음의 비중을 점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제작체계의 구성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겠다. 방송 현업과 밀

접한 두 매체가 가장 빈번하게 다루는 기사의 주제어는 방송 제작 체계의 구성요소와 연관을 맺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매체들의 담론의 토대가 되는 것이 편성과 제작이라면 여타의 주제어들은 편성과 제작을 둘러싼 구성요소로 볼 수 있겠다. 방송 제작의 체계를 구성하는 변인들로 공통적으로 손꼽고 있는 구성요소는 제도·정책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또한 방송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하부적 인프라로서의 기술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충분히 강조되었다. <PD 저널>에서 기술 변인에 대해 낮은 비중을 보인 것은 방송 피디들이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프로그램 제작을 둘러싼 거시적이고 관념적인 요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속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 요소는 콘텐츠 산업의 유통과 수출 등에 대한 기사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방송시장이 다시 제작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조직관련 기사는 월간 <방송문화>에서는 적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PD 저널>에서는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직의 구조와 조직의 문화가 제작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므로 조직 변인 역시 제작 체계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만하다. 반면에 편성 제작은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작 자체이기 때문에 제작체계의 변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장시기 별 변화를 살펴보면, <방송문화>의 경우, 제도·정책은 점점 비중이 커졌으며, 기술은 줄다가 김인규 시기에 커졌으며, 조직과 편성·제작은 점점 줄어들었다. <PD 저널>의 경우, 제도·정책은 변함 없었으나, 기술과 조직, 법적 쟁송은 점점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방송문화>·<PD저널> 기사빈도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방송문화	제도·정책	편성 제작	산업	기술
PD저널	제도·정책	조직	편성제작	행사동정

종합하면, [표 5]에 정리된 것처럼 <방송문화>에서는 제도·정책, 편성·제작, 산업, 기술의 순서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PD저널>에서는 제도·정책, 조직, 편성·제작, 행사동정의 차례대로 순위를 보였다. 따라서

두 매체가 다룬 주된 주제어라 할 수 있는 제도·정책, 조직, 산업, 기술을 제작체계를 구성하는 주된 변인이라 유추할 수 있으며, 공영방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제도·정책 요소, 경제적 요소, 기술적 요소, 조직 내부적 요소들과 대체로 유사하다 하겠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 제작의 체계의 구성요소를 제도 정책, 조직, 산업, 기술 등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방송 제작 체계의 변화를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문헌

- [1] 정형기,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바람직한 PD 시스템: KBS를 중심으로”, 방송개발, pp.107-126, 1994.
- [2] 이정근,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작가 프로듀싱 시스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3] 안병락, 방송사 내부로의 VJ 제작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KBS <TV문화기행>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석사학위 논문, 2001.
- [4] 김선영, 드라마 제작에 관련한 이해관계자간 파워 인식이 제작시스템 결정에 미치는 영향 : 사전제작시스템과 반제작시스템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5] 한균태, 공영방송의 제작시스템 개선방안,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보고서, 1995.
- [6] S. Reese and P. Shoemaker,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 on Mass Media Content, New York:Longman, 1991, 김원용 역, 미디어 사회학, 나남, 1992.
- [7] 주성희,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의 프로그램 폐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8] 김영입, 이창현, 방송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5.
- [9] 주정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지배구조”, 최영묵 외, 공영방송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12.
- [10] Riffe, Daniel, Lacy, Stephen, Fico, Frederick G.,

Analyzing Media Messages, Lawrence Erlbaum Assoc Inc .2005. 배현석 역, 미디어 내용분석 방법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저자 소개

홍 경 수(Kyung-Soo Hong)

정회원



- 1990년 2월 : 고려대 신방과
- 2000년 2월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석사
- 2012년 8월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순천향대

미디어콘텐츠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방송비평, 서사분석